

아이들의 웃음소리 한가득, 꿈도 ‘쓱쓱’

전 주시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터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에서, 더 재밌고 특색 있게 변신한 놀이터에서, 책과 함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에서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도심 곳곳에 숲놀이터와 책놀이터, 물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 공간을 확대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워 더 큰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아동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하는 같은 놀이터도시 정책을 지지해주고 있다.



▲“숲놀이터에서 자연과 함께 뛰어놀자”

시는 민선 6·7기 동안 야호아이숲 9곳, 유아숲체험원 4곳 생태놀이터 14곳 등 27곳의 숲놀이터를 조성했다. 효자공원, 인후·송천동 등 현재 조성 중인 곳까지 더하면 올해 30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야호아이숲은 아이들이 숲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다. △조경단 입금담숲 △남고사 팻장밭레슬 △천장산 배구르르 솔방울숲 △서곡지구 꼬불꼬불도토리숲 △완산철봉 ‘신기방기 도깨비숲’ △간지산 ‘뽕까딱가 배짱이숲’ △지곡배수지 인근 ‘알콩달콩 고슴도치숲’ △산성공원숲 ‘달라달라 두더지숲’ △기린공원 ‘볼락볼락 뽕이숲’ 등 9곳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짙리파 트리아우스 등 다양한 숲 체험 시설이 갖춰져 어린이들의 자연 체험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 예약현황을 보면 지난해 4만384명이었던 것이 올해 벌써 7만3000명을 기록하는 등 아이들의 방문이 계속 늘고 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면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유아숲체험원도 인후공원과 혁신도시, 학산, 서곡지구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바늘건너기, 흔들다리건너기, 터널놀이, 그물오르기, 미로놀이 등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난해에만 총 1만5886명이 다녀갔다.

여기에 시는 송천동 전라북도 어린이친화체험관 뒤편에 이 같은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조성하고 있다. 중국단풍과 느티나무, 가문비나무 등 다양한 수목대가 있는 곳으로 생태교육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의 전라북도자연사박물관과 덕진공원 탐견사·탐견하우스, 전북도어린이친화체험관 등과 연계해 아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놀이코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만성지구, 효천지구, 예곡시터 등에서 14곳의 생태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노송광장 생태놀이터의 변신이 눈길을 끈다. 이곳에는 짙리파 통나무터널, 모래놀이터, 트리아우스, 바락놀이길, 바구니그네, 해먹 바늘그네, 비터분수 등이 설치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호동골 양묘장과 전주 자연생태관에서 꽃·나무·열매 교육 등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더 재밌고 특색 있게 뛰어놀자”

시는 어린이들이 더 재밌고 특색 있는 공간에서 맘껏 뛰놀 수 있도록 정형화된 기존 놀이터를 창의성이 가득 특색 있는 놀이터로 개선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덕진동 쇄풍구리공원 △효자동 효문어린이공원 △효자동 풍남어린이공원 등 3곳을 더욱 모험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시켰다. 쇄풍구리공원은 인공언덕 놀이대와 짙리파 등이 설치된 모험놀이터로, 효문어린이공원은 키펀드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풍남어린이공원은 그물놀이대, 나무집 등 다양한 놀이 체험 공간으로 특색 있게 탈바꿈했다. 놀이환경 개선 이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어린이들의 이용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는 긍정적인 결과도 나왔다.

이에 더해 시는 총 82억7000만 원을 들여 송천동 솔내어린이공원과 인후동 북가재미공원을 모험놀이대 등 모험성을 강화한 창의놀이터로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평화동 천새암공원 △효자동 물빛채어린이공원 △효자동 효자공원 인근 △만성동 5호



꼬불꼬불 도토리숲



인후공원 유아숲체험원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야호 물놀이터도 조성돼 있다. 시는 유아동 소공어린이공원과 효자동 양지어린이공원에도 이 같은 물놀이 시설을 추가로 구축해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친구들과 재밌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주한옥마을 내 전국 최초 전통놀이 전용공간인 ‘우리놀이터 마루담’도 놀이의 다양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부호놀이, 딱지치기, 고무줄이, 윷놀이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뛰어놀자”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한 시는 곳곳의 도서관들을 책놀이터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딱딱했던 정형적인 도서관 분위기를 벗어나 아이들이 책과 함께 놀면서 자유롭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2019년 평화도서관을 시작으로 삼천도서관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재개관했다.

민선 6·7기 동안 야호아이숲 등 조성... 올해 30곳까지 늘어나

덕진동 쇄풍구리공원 등 정형화된 놀이터, 특색 있게 개선

책의 도시 비전 선포 따라 도서관 곳곳 책놀이터로 정비



대표적으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 조성된 트윈세대(12~16세) 전용공간인 ‘우주로 1216’가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트윈세대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서가와 함께 △소풍을 위한 ‘특별존’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할 ‘충공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속속존’ △사색의 공간인 ‘꿈꿈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유로운 창작 활동과 전시·낭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삼천도서관의 경우에도 어린이 책 놀이터 ‘숲놀이’와 유아 책 놀이터 ‘빈틈놀이’를 비롯해 북큐브, 오두막, 원형서가, 카페 등 유아와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졌다.

현재 시는 금암·인후·송천도서관을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머지 도서관들도 책놀이터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생태·숲체험장 △유아숲체험원 △생태놀이터 △예술폰타 △책놀이터 △물놀이터 △공원 놀이터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주 야호놀이터 지도’를 제작했다. 아이들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배부된 지도와 ‘야호놀이전주’ 홈페이지(jonju.go.kr/yaho)에서 지도를 보고 놀이터에 찾아가면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나치게 안전하고 정형화된 놀이터보다는 건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연 속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험심과



노송광장 생태놀이터 ‘그물놀이’



노송광장 생태놀이터 ‘통나무터널’



노송광장 생태놀이터 ‘꿈꾸는 나팔 댕’



야호책놀이터 삼천도서관 재개관식



트윈세대 이지트 ‘우주로 2016’

협동심,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곳곳에 책 놀이터, 숲 놀이터 등 전 주형 야호 놀이터를 조성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인터뷰 - 김승수 시장

“아이들 상상력·꿈 키우는 놀이터도시



“자연주의 교육을 주장했던 사상가인 루소의 말처럼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과 숲에서 뛰어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풀, 나무와 같은 자연 재료를 모아 놓고 거기서 놀게 하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수십 수백, 수천가지의 상상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야호생태·숲놀이터, 야호예술폰타, 야호책놀이터, 야호화교, 야호부모교육 등 전주형 야호대 플랜은 ‘도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나치게 안전하고 정형화된 놀이터보다는 건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연 속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험심과 협동심,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서관 또한 단순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책과 놀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